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26~5/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기도문:매순간행복해지는마음습관	동명	불광출판사
2	365일눈부신하루를시작하는한마디(스프링)	법상/용정운 그림	조계종출판사
3	요가수행디피카(아헹가요가5)완전함,내면의평화,해탈의	아헹가초니에반스다글라스 에이브럼식	선요가
4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5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6	명상차를논하다(3)행다선	지운 스님	연꽃호수
7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불교학	김성철	오타쿠
8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9	만화로보는불교명상길라잡이(대원불교문화총서2)	방경일 글,정기영 그림	운주사
10	숫따니빠따(빠알리원전번역)*숫타니파타	일아 옮김	불광출판사

책세상

내 삶 채우는 작고 느린 존재들에 대하여



사소한 것은 없다
동은 · 진광 스님
모과나무
1만 9천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매일 쓰는 안경, 볼펜과 만년필, 여행의 풍경, 저녁노을, 산들바람, 출퇴근길 등 우리 삶을 채우는 작고 소소한 존재들을 감성과 낭만으로 풀어 쓴 에세이 〈사소한 것은 없다〉는 "과연 삶에서 사소한 것이 있기나 한 걸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사소한 것은 없다〉에서 동은 스님과 진광 스님은 스무 가지 '사소한' 주제와 관련해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40여 년 전 토굴 시절 사용하던 '찻잔'을 보고는 초발심을 경책하는 선지식이라도 만난 듯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일주문' 앞에서는 생애 가장 위대한 포기이자 탁월한 선택을 했던 출가의 순간을 떠올리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산책길에 만난 '의자' 덕분에 오솔길에 멈추어 서서 숲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음미하기도 한다. 찻잔, 일주문, 의자… 등은 누구나 비슷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는 개념이지만, 자기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저 그런 '사소한 존재'가 아닌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사소한 것은 없다〉가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이 이런 사소한 존재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는 일 말이다. 그리하여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존재에 대해 각자가 의미를 부여하고 곱씹어보면 '사소함'은 결국 '소중함'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법성게〉에 따르면 '한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一微塵中含十方)'고 했다. 즉 진리는 깨달은 자의 큰 뜻에만 있는 게 아닌, 티끌 같은 사소한 것들 어디에나 있다는 말이다. 저자인 동은 스님과 진광 스님은 사소한 것들을 깊이 바라볼 수 있으면 저마다 삶이 소중하다고 느끼게 되고, 거기서 인생의 의미가 특별해진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정답이 따로 없으며, 각자가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내 삶이 풍성해진다는 이야기일 테다.

'감성 제일존자' 동은 스님 '낭만 떠돌이별' 진광 스님 따로 또 같이 일상 '사소함'을 찬찬히 돌아보는 시간



이를테면 '와불'이란 주제에서 동은 스님은 오래전 인도 순례길에서 친견한 와불을 떠올리며, 45년간 중생을 위해 설법하시다가 쇠약해지고 지친 몸으로 사라수 아래 누워 다시 일어나지 못한 마지막 모습을 들려준다. 동은 스님은 이렇듯 '가장 인간적인 삶이야말로 가장 수행자적인 삶'이라는 생각을 와불을 통해 자연스레 펼쳐놓는다. 한편, 진광 스님은 운주사 와불을 떠올리며, 우리가 민초들의 벗이 되고 그들을 하늘로 알고 섬긴다면 누워계신 부처님이 어느 날 시나브로 일어나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으며, 자신도 중생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고 세상과 중생에게로 당당히 걸어가고 싶다고 다짐한다. 와불뿐 아니라 출퇴근길, 여행의 풍경, 노을, 길 등 다양한 주제에서 두 스님은 각자가 경험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펼쳐놓는다. 마치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기만의 경험이 있지 않느냐고 격려하는 듯 말이다.

결국 이 책에서 두 저자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나'만의 시각으로 존재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자기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다. 두 스님들은 이 책이 '사소함'에서 시작했지만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사소함이 결코 사소하지만은 않았음을 회고한다. 그렇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식의 시도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두 저자는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의 목소리를 전한다.

〈사소한 것은 없다〉은 한 주제에 대해 두 저자가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의 질문에 접근해간다. 그리고 그 진지한 사유가 독자들에게도 오롯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두 저자의 글을 독립적으로 배치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종국에는 하나의 길 위에서 만난다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이 품고 있는 주제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두 스님의 글을 모두 읽었을 때 좀 더 의미가 깊다. 실제로 동은 스님과 진광 스님은 글을 쓰는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 다른 면모를 발견하면서 더욱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두 저자의 이런 배려가, 처음 출발점은 다르지만 도착점은 가장 가까이서 만난다는 이 책의 구성과도 잘 들어맞는 결과물로 이어졌다. 이 책이 따뜻하고 아름답게 읽히는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저자 동은 스님은?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했다. 해인사승가대학과 송광사 율원을 졸업하였으며,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불교미술을 공부했다. 해인사, 봉암사, 통도사, 불국사, 백련사 무문관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하였고, 《월간 해인》 편집장을 맡기도 했다. 지금은 조계종 화쟁위원을 맡고 있으며, 삼척 두타산 동쪽 천은사에서 살고 있다. 강진 백련사 무문관 선방에서 틈틈이 쓴 《무문관일기》는 2011년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절판되었다가 2018년 《그대 지금 간절한가》로 다시 출간되었다.

▲저자 진광 스님은?

덕숭산 수덕사로 법장(法長)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원담(圓潭) 스님을 3년간 시봉하다 선원으로 향했다. 정혜사,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운문암, 극락암, 기기암 등 제방선원에서 25안거를 성만했다. 2003년 조계종 총무원 수행사서를 거쳐 2010년부터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연수국장, 교육국장, 교육부장으로 10년간 재직하며 교육개혁과 혁신을 위해 함께했다. 2020년 가을, 공주 유구 은구재(隱求齋) 토굴에 내려와 다시 선원에 들어 정진하며 독서와 여행, 글쓰기와 참선 중이다.

"미술 생명력은 창의 담보한 시대정신"



불교미술의 시대정신
손연칠 · 손문일 지음
뿌쉬낀하우스
2만5천원

"미술의 생명력은 시대정신이다."

시대정신은 창의성을 담보한다. 불교미술도 마찬가지이다.

〈불교미술의 시대정신〉은 근현대들어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불교미술의 현장을 찾아 시대정신을 담보한 창의적인 불사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손연칠 작가는 이 책에서 미술의 생명력을 '시대정신'으로 보고 불교미술의 가치와 목적성에 대해 논한다. 그동안 우리 불교계의 미술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의 문제점과 미래 지향점을 제시함으로써 불교계의 관심과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 명예교수인 손연칠 작가는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불교미술의 창의적 전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이웃 종교인 한국교회 미술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일찍부터 시대정신에 따른 창조적 미술 운동을 선도했다"면서 "불교미술 역시 시대 정신에 따라 독자적인 창의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그 가치를 분별해 냉혹하게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몰개성적 불사 변혁 없인 신세대 포교 불가능 강조

〈불교미술의 시대정신〉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현대 불교미술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이웃 종교인 한국 가톨릭 교회미술의 시대정신에 따른 창조적 변혁에 대한 미술 운동을 소개하고 국내와 유럽의 대표적인 사례들도 실었다. 손연칠 작가는 "몰개성적인 불사를 변혁시키지 않고서는 신세대들에 대한 포교는 불가능하다"면서 불교의 당면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불교미술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언어로 표현한 깨달음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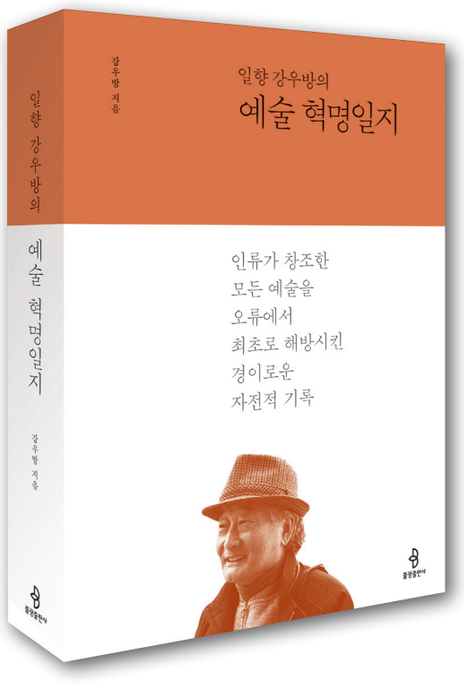
나에게도 날개가 있다면
오현 스님 등 21명
이서원
1만5천원

승려시인회(회장 진관) 소속 시인들이 출간한 '승려시집 10집-나에게도 날개가 있다면'에는 오현 스님, 소현 스님, 경암 스님, 명안 스님 등 21명 시인들의 작품이 담겼다. 오현 스님의 '내가 죽어보는 날' '아득한 성자' 진관 스님의 '서울 까마귀' '금촌역에서' 등 100여 편이 수록됐다.

진관 스님을 비롯한 승려시인회 소속 스님들은 시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꾸준히 시집을 출간, 벌써 10집을 맞았다. 승려시인회장 진관 스님은 "부처님으로부터 일체 미진수의 선지식들에 이르기까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의 세계를 부득이 언어로써 표현해야 하는 소통의 한계를 시를 통해 극복하려 했다"면서 "승려시인들은 문학포교의 중흥을 책임져야 하며 그것의 실천으로 힘이 닿는 대로 시집을 발표하는 '광선유포결사'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려시인회는 1971년 3월 14일 대구 파계사에서 조오현을 필명으로 쓰던 무산 스님을 회장으로 지현, 병석, 성우, 정휴 스님 등 20여 명이 참여해 발족했다. 승려시집 4집까지 발간한 뒤 활동이 중단됐다가 1993년, 진관 스님을 위원장으로 청화, 대우, 수완, 혜일, 지원 스님이 참여해 15년 만에 재창립, 승려시집 5집 '피안으로 가는 수레'를 시작으로 꾸준히 시집을 발간해오고 있다. 임은호 기자

세계미술사에 유례없는 발자취를 남기며 미술사를 사상사로 끌어올린
미술사학자 강우방의 거침없는 예술 이야기!



일향 강우방의 예술 혁명일지

인류가 창조한
모든 예술을
오류에서
최초로 해방시킨
경이로운
자전적 기록

강우방 지음
376쪽 | 32,000원



교과서에 박제된 예술품은 잊어라,
어디서도 듣지 못한 진정한 예술 세계로의 초대!

"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넓고 심오하다.
그 세계를 알아차리고 보게 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롭고 놀라운 안목이 열린다.
즉 개안하는 감격을 누린다.
"
_ 강우방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홈페이지 www.bulkwang.co.kr